

현재 불안장애의 분류 : 타당한가?

유 범 희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정신과

현재 불안장애의 DSM-IV 분류체계는 1994년에 출간되었다. 현재의 불안장애 분류체계가 예전에 비해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분류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으며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조만간 출간될 DSM-V에서 일부 보완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현재 DSM-IV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DSM-IV 진단분류가 정신장애를 그 질환의 특징을 담고 있는 진단기준 세트에 근거하여 유형을 나누는 categorical classification이라는 점이다. 이런 categorical classification은 같은 진단군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질적이거나, 진단군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있거나, 서로 다른 진단군은 상호 배타적일 경우에 가장 잘 작동한다. 하지만 현재의 불안장애 분류는 같은 진단에 속하는 환자들도 증상이 이질적인 경우가 흔히 있으며, 진단군 사이에도 유사한 증상기준이 많아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으며, 두개 이상의 불안장애 진단이 공존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categorical classification 체계를 따르고 있는 현재의 불안장애 분류체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으며, 생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증상 위주의 진단분류를 하는 데서 오는 진단의 모호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생물학적으로 유사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공황장애와 범불안장애가 과연 서로 다른 질환인가 하는 문제나 강박장애가 불안장애에 속하는 질환이라 볼 수 있느냐는 문제 등과 같이 현행 진단분류 체계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저자들은 현재 불안장애의 분류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현 진단분류체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